

2030세대의 대물림된 장애 혐오에 대한 Apologia: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에 대한 문학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정서빈*·유은빈**·이의경***

본 연구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기해 폭발한 2030 세대의 혐오의 원인을 탐색하고 폭력의 양상을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자기 성찰을 결들인 개인 의견에 대한 옹호’를 뜻하는 ‘Apologia’를 통해 성취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자들은 2030 세대의 혐오는 오랜 시간을 거치며 일상화된 부당한 차별에서 기인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에 대한 옹호를 진행할 것이다. 다음으로, 오늘날 행해지는 폭력의 성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보여줌으로써 자기 성찰을 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성찰의 결론으로 오늘날의 장애 혐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Apologia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위해 문학텍스트 분석이라는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세 문학텍스트 『SCP 재단』, 『어둠의 속도』, 『아몬드』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각의 문학텍스트를 통해 ‘옹호’, ‘자기 성찰’, ‘성찰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라는 개념을 중심에 두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오늘날의 사회는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구조의 문제를 일상화하였고 그것이 장애인들에게 탈정체성의 폭력으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일상적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으로 탈장애적 시선을 가질 것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장애, 2030 세대, Apologia,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

* 송실대학교 철학과 학부

** 송실대학교 철학과 학부

*** 송실대학교 철학과 학부

I. 서론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대한민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던, 그리고 현재까지 지속 중인 문제 중 하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라고 생각된다. 이는 여타의 인권 시위와 비교하면 미디어의 관심을 독차지한 듯한데, 그 관심의 주체는 대다수가 2030 세대인 것으로 여겨진다. 2030 세대는 시위 자체의 본의에 대해 숙고하기보다 그에 대한 혐오 감정만을 표출하여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2030 세대의 전장연을 향한 혐오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SNS를 통해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향해 직접적인 공격을 가한 청년은 증거자료와 함께 뉴스에 보도되었고 (하민지, 2022) 인터넷상에 혐오 표현을 남발하는 이들의 수도 상당하다. 대표적으로, 대학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전장연 시위 이후 장애인을 향한 공격적이고 무분별한 혐오표현의 글들이 상당수 올라왔다. 이에 서울대학교 학생 중 일부는 에브리타임 서울대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온 혐오표현에 반발하며 전장연 연대 연서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고병찬, 2022). 즉, 이번 전장연 시위의 목적이었던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논의는 점점 잊히고, 그 여백을 혐오가 차지하고 있다.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확산은 문제를 중립적으로 관찰하기 어렵게 하며, 논의의 핵심을 가림으로써 정작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해결을 미루고 부차적인 부작용만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2030 세대의 혐오의 원인을 파악해 그들이 가하는 폭력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문제의 심각성을 명시함으로써 혐오의 확산을 막는 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Apologia가 요구된다. Apologia는 자기 성찰을 결들인 개인 의견에 대한 옹호를 뜻한다. 즉, 본고에서는 2030 세대에 대한 자기 성찰과 함께, 혐오를 행하고 있는 2030 세대에 대한 옹호, 혹은 변호를 시도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 연구자들은 2030 세대의 혐오의 원인이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성세대로부터 내려온 차별적 선입견과 구조의 고착화가 오늘날 2030 세대의 혐오의 주된 원인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물론 2030 세대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본 연구자들은 일상화된 관행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기 어렵듯, 장애 혐오와 차별도 오랜 역사를 거치며 ‘일상적인 것’이 되어 버렸고, 2030 세대는 그러한 관행을 세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2030 세대는 부당한 관행(일상화된 혐오)의 상속자로서, 그들의 행위에 문제의식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일상성¹⁾’에 잠식되어 혐오와 차별을 확산시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30 세대를 옹호, 혹은 변호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1) 본 연구자들은 일상적인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사회가 구축한 ‘일상적 관행’이 그 관행 자체의 문제를 가리고 있는 상황을 ‘일상성’이라고 표현하기로 정했다.

충분하지 않다. 옹호에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폭력의 양상을 성찰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서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혐오와 차별의 원인을 단순히 현세대에게서만 찾는 연구 방식은 문제의 핵심을 짚지 못하며, 이후 비슷한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힘들다. 따라서 2030 세대에 대한 Apologia를 바탕으로 혐오와 차별 문제를 깊이 성찰하고 문제의 근원을 추적하여,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문제의 근원적 분석과 해결책 제시가 Apologia의 진정한 가치인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Apologia의 정의 속 '자기 성찰'에 해당한다. 본 연구자들은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장애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수정하려는 태도라고 보았고, 이를 '탈정체성'이라고 명명하였다²⁾. 또한 이와 같은 성찰의 결론으로서, 혐오를 근절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장애와 비장애의 규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탈장애'적³⁾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세 가지의 주제는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이다. 세 주제를 다시 정리하면, 첫째로 일상성은 그릇된 사회구성적 장애의 개념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폭력이 구조적으로 일상화되어, 대중이 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둘째로 탈정체성은 장애 상태를 비장애 상태로 수정하고자 하는, 정체성을 파괴하려 하는 사회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끝으로 탈장애란, 장애는 사회가 개인에게 씌운 '프레임'일 뿐이므로, 한 인간을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로 규정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주장을 담은 개념어이다.

본 연구자들은 위의 세 주제를 문학텍스트 분석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다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 문학텍스트 속 나타난 '일상성'의 발생 양상, '탈정체성'이라는 폭력, '탈장애'의 가치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학텍스트 분석은 본고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상술하였듯 오늘날 장애에 대한 배제나 선입견의 일부는 이미 너무나 일상적인 것,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려 사람들이 그에 대해 쉽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학텍스트의 분석은 일상에 감추어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내는 역할, 즉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2) 장애인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거나 일반화하는 행태는 '정체성으로부터의 탈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명명하였다.

3) '정상'과 '비정상', 나아가 '장애'와 '비장애'간의 구분이 불가능함을 밝히는 개념으로서, '장애'라는 규정으로부터 탈피한다는 의미로 명명하였다.

역할을 수행한다. Ghosh(2021)는 그의 저서 『대혼란의 시대』에서 문학이 가지는 특수한 힘에 대해 역설하였다. 그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학은 특정한 상황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그려낸다. 즉, 문학을 통해 현실을 타자의 눈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학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현실 속에서 정당화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을 문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2030 세대가 가하는 폭력의 양상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본고에서 분석할 문학텍스트는 『SCP 재단』, 『어둠의 속도』, 『아몬드』이다. 본 연구자들은 이 세 문학텍스트가 각각 ‘일상성’, ‘탈정체성’, ‘탈장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SCP 재단』은 인터넷 위키 사이트로, 초자연적인 물체, 현상, 생물 등을 뜻하는 SCP와, SCP들을 다루는 SCP 재단을 주제로 한 창작물을 다룬다. SCP 재단의 문서들 중 본고에서 다룰 ‘SCP - 001 WJS의 제안: 정상성’은 ‘사랑’을 명목으로 ‘변칙적인 것’, 즉 비정상적인 것들을 격리하는 행태를 정당화하는 사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상성’의 존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문학텍스트이다.

『어둠의 속도』는 미국 소설가 Elizabeth Moon의 장편 SF소설로, 과학기술이 발달한 근近미래를 바탕으로 한다. 소설은 천재적 자폐인 ‘루 애런데일’과 그를 배제하려 하는 사회적 억압, 그리고 강요된 ‘정상화 수술’의 대립 구도를 통해 장애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탈정체성’의 특징을 보여준다. 특히 『어둠의 속도』에는 자폐인 주인공의 내면이 만연체의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억압에 맞서는 장애인의 심리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즉 탈정체성이 어떻게 발현되고, 어떤 방식으로 장애인을 억압하는지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본 연구자들은 『어둠의 속도』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몬드』는 국내 소설가 손원평의 장편소설로, 감정을 느끼지 못하여 ‘비정상’으로 여겨지는 주인공 ‘윤재’와 그에게 감정을 가르쳐 ‘정상’의 삶을 살게 하려는 그의 가족, 그리고 반대로 ‘정상적’ 기반을 가졌지만 ‘비정상적’ 삶을 살아가려는 ‘곤이’에 대한 이야기이다. 해당 소설의 주인공 윤재와 곤이는 모두 ‘정상이면서 비정상인’, 혹은 ‘정상이라고 규정할 수도, 비정상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는’ 인물이다. 즉, 『아몬드』는 ‘장애에 대한 규정 자체의 불가능성’, 다시 말해 탈장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 또한 『아몬드』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문학텍스트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탈장애를 이해·실천하는 데 있어 내용과 접근성 면에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세 문학텍스트를 분석할 때, 본 연구자들은 문학텍스트와 현실 상황의 유사점을 중심에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소설의 ‘재현’이라는 특성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현실을 객

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들을 추출하였고, 후술할 장애인론가들의 이론을 각각의 부분에 적용하여 문학텍스트를 통해 비가시적인 현실의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자들은 문학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그 속에서 사회가 장애를 대하는 모습, 장애인 주인공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 가지고 있는 태도, 장애에 대한 편견의 양상 등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것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이론가들과 비평가들이 말하는 장애와 장애인론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이슈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인해 1980년대부터 학문적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대표적 이론가는 사회적 장애모델을 제시한 Michael Oliver, 구성주의적인 몸의 사회학을 비판하며 실재적인 물질적 몸을 복권시키려는 Simon Williams와 Gillian Bendelow 등이 있다. 90년대부터 본격적인 장애 담론이 시작되었는데, Thomson(2015)은 『보통이 아닌 몸』에서 “문화적으로 구성된 ‘정상인’을 불안정하게 만들”고(P. 20), “장애의 재현들이 억압적인 동시에 해방적인 것이 될 수 있는지에 집중함으로써 자아와 타자, ‘정상인’과 그로부터의 일탈 같은 단순한 이분법을 복잡화하려 한다”(P. 21). 그녀는 더 나아가 “‘정상인’이 하나의 장애가 다른 특성들을 말살시킨다고 생각해 복잡한 사람을 단 하나의 특성으로 축소시키는 일”을 비판한다(P. 28). 이를 통해 장애의 사회구성적 성격과 사회적 억압의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Gleeson(2020)은 『장애의 지리학』에서 “사회적, 공간적 과정이 어떻게 신체적 결합을 가진 사람들을 가능하게 하기보다는 불가능하게 하도록 이용될 수 있는가(P. 13)”를 탐구하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억압 양상을 드러낸다. 2000년 들어 영국의 사회과학자이자 장애 활동가인 Shaeksphere(2002)는 『장애학의 쟁점』에서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 구분 중 많은 것이 잘못되고 위험한 점”(P. 27)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사회구성주의 이론에 대한 설명과 한계,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Devileger 등(2021)의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같음 또는 다름으로 묘사하는 모든 포괄적인 견해를 다루고, 이런 관점에 기반하여 핵심 모델과 개념을 발전시킨다(P. 13). 국내의 장애학 연구자 김도현(2007)은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를 통해 모든 대상과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개인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장애인의 권리와 의제를 매개로 여러 논점을 제시한다(P. 14). 또한 『장애학 함께 읽기』(김도현, 2009)에서는 “진보적 장애인운동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아야 할 만한 주제들”(P. 11)을 보인다. Shah와 Priestley(2014)는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에서 오늘날 장애 청소년들의 삶이 이전의 장애 청소년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 판단하기 위해 개인의 전기적 경험과 역사적 정책 분석을 서로 조합한다(P. 17).

최근의 연구들은 장애에 철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Kristiansen, Vehmas, Shakespeare

등(2020)이 편집한 『철학, 장애를 논하다』에서 저자들은 “형이상학이나 정치철학이나 윤리학의 견지에서 장애를 분석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P. 19). 마지막으로 Stiker(2021)는 『장애: 약체들과 사회들』에서 인류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으로 “공통의 것으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에 대해 행해진 “사회적 방식들의 역사를 살피는” 작업을 수행한다(P. 40).

이상의 문헌들을 통해 장애에 관한 주된 쟁점들과 논의들을 살펴보고, 장애가 사회의 규정에 의해 형성되는 방식, 장애인 정체성의 억압 등 구체적인 차별의 양상, 그리고 차별이 삶에 내재해 있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본고에서는 문학텍스트 분석의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기에, 분석의 방법론을 탐구하기 위해 국내 연구자들이 문학에 나타난 장애에 대해 집필한 논문들도 검토하였다. 장애주제연구는 2000년에 들어 그 학문적 관심이 높아졌는데, 최선희와 이승희(2008)는 그들의 논문 「한국소설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 - 1980년부터 2007년까지를 중심으로」에서 1980년부터 2007년까지의 한국문학 속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 장애 원인, 직업, 교육 정도를 조사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차희정(2012)은 「장애인 소설에 나타난 ‘장애’인식의 양상 - 장애인 창작소설을 중심으로」에서 “장애인 소설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장애’ 인식 양상을 살펴”(P. 334)본다. 김세령(2015)은 「한국 장애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 - 김미선의 소설을 중심으로」에서 장애인 작가인 김미선의 소설 속에 나타난 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작가로서 그것을 표현하는 경향을 탐구한다. 박성애(2018)는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윤리성과 전복의 상상력」에서 “2000년대의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 텍스트를 분석하여 아동과 장애아동을 비롯한 타자에 대한 성인 작가의 윤리와 전복의 상상력을 타자윤리적 관점에서 탐색”하고(P. 323), 박성애와 윤상용(2020)의 합동연구 「청소년 소설에 나타나는 타자성의 공간과 타자의 존재 방식」에서는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등의 청소년 소설에서 나타나는 타자성의 발현과 그 양상을 탐구한다. 이어 김민령(2021)은 「포스트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 - 아동청소년 SF 서사를 중심으로」에서 SF 작품 속의 포스트휴먼적 인물들이 어떻게 장애를 재현하고 재인식하게 만드는지 보여준다.

위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문학 속에 드러난 장애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여 규명하거나, 장애와 타 학문을 융합하여 새로운 시각을 도출하려는 목적의 연구들은 여럿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분석에서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각을 이끌어내어, 그를 바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이끌어 가고자 한 연구는 희소했음이 드러났다. 따라서 본고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문학텍스트의 분석을 통한 현실 문제의 해결’은 장애를 이해하는 데 있어 기존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학텍스트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혐오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II. 연구 내용

1. 『SCP 재단』과 일상성

1) SCP 재단에 드러난 정상성과 비정상성

정상이란 무엇인가? 비정상이란 무엇인가? 왜 누군가는 정상이고 다른 누군가는 비정상인가? 이 둘을 나누는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가? 본고에서는 이 의문들에 하나의 답변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되곤 한다. 그러나, 서론에서 밝혔듯 본 연구자들은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기준이 사회적 합의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여긴다. 이 점을 SCP 재단의 문서 중 ‘SCP - 001 WJS의 제안: 정상성’(이하 ‘WJS의 제안’)의 분석을 통해 드러내려 한다. 더불어 ‘일상성’ 개념에 대한 분석 또한 진행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가하는 폭력이 ‘일상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추어져 왔음을 보여주어 2030 세대를 ‘옹호’할 것이다.

먼저 SCP 재단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 웹사이트는 초현실적인 대상을 확보, 격리, 보호하는 ‘SCP 재단’이라는 가상의 재단을 상정하고 재단이 다루는 초현실적인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서술하는 공동 창작 웹사이트이다. 작가들은 초현실적 대상을 ‘SCP’라고 지칭하고, 이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다. 예컨대, ‘만병통치약’이라는 초현실적 주제에 관해 문서를 작성할 경우, 작가는 만병통치약이라는 주제에 일련번호를 붙인 뒤, 이를 SCP 재단에서 관리한다는 설정 아래에서 연구 보고서를 창작한다. 연구 보고서에는 연구 대상에 대한 설명, 연구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논의와 주석, 기록 일지, 대상과의 대화 등이 포함된다. 만병통치약 이외에도 ‘마시면 늙지 않는 샘물’,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등과 같이 상상 속의 연구 대상을 창작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보고서에 담는다.

SCP 재단의 문서 중 본고에서 다룰 것은 “SCP - 001 WJS의 제안 - 정상성”이다. SCP - 001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CP-001은 합의 현실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즉 변칙적 현상이란 해당 문서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의 현상으로 정의된다. O5 평의회⁴⁾의 결정에 따라, 해당 문서는 현실의 일부 특성을 본래부터 변칙적인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WJS 제안 - SCP 재단, 2021)

4) SCP 재단에 대한 최종적 통제권을 가진 평의회. 총 13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합의 현실’이란 O5 평의회가 어떤 물건, 생물, 현상을 SCP로 지정할지, 다시 말해 어떤 것이 변칙적인지 아닌지에 대해 합의해 놓은 것이다. 관행적으로 중력, 물리력, 기초화학의 보편법칙, 생물학, 사회학, 철학에 속한 것들이 ‘합의 현실’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이들은 비변칙⁵⁾적인 것들이다. 새로운 과학 지식의 발견 등 기존의 합의 현실 내의 지식체계에 기반해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비변칙적인 것에 속한다. 재현이 불가능하며 주장하는 이의 의식에만 영향을 주는 현상들 또한 비변칙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이상의 규정을 벗어나는 생물, 사물, 현상들은 모두 변칙적인 것으로 취급하며, 확보하고 격리할 대상으로 본다.

오늘날 사회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는 ‘정상’이라는 개념을 합의 현실처럼 사용하며, 정상의 틀 밖에 있는, 비정상으로 분류된 장애인들을 차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SCP 재단이 변칙개체들을 격리하듯이 장애인들을 인위적인 분류에 따라 ‘비정상’이라 규정하고 차별하게 된 것일까? 이유는 단순한데,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다.

Stiker(2021)는 선천적 기형, 신체적 기형 등 장애를 가리키는 여러 부정적인 용어들은 우리의 어떤 공포감을 증폭시킨다고 말한다. 이 공포는 우리의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상태에 더 이상 포함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에게 강요하는 불편함, 일종의 고통의 정도를 뜻한다. 더구나 이 최초의 공포는 우리가 그를 수용하는 즉시 뒤따르게 되는 변화들과 맞닥뜨렸을 때 훨씬 더 빠르게 부각된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에서든 주위에서든 ‘장애’의 출현은 구체적이고도 사회적인 혼란을 초래한다. 장애가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본능적인 반응, 즉 두려움이 일어난다. 이 세상이 ‘정상’을 위해 조직되어 있을 뿐, 아직 장애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는 혼란일 뿐이다. 더욱이 우리가 장애인의 어려운 삶이나 혼돈 등과 같은 장애로 인한 결과들을 마주할수록 기존의 가치관,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세계관에 따라 이런 두려움은 더욱 커진다(Devlieger et al., 2021). 다름의 존재는 대다수를 위해 견고하게 ‘구성된’ 현실에 동요를 일으키며, 사람들은 다른 존재, 즉 변칙개체의 등장에 당황하고 두려워한다. 사람들은 변칙개체들이 일상 속에서 설명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들의 실재성을 배제하기도 한다. 즉 변칙개체들은 단지 그들의 다름으로 인해 사회 전반으로부터 배척당하게 된다. 간혹, 이러한 배척과 반대로 손을 내미는(통합하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내거는 관계도 결국 변칙개체를 삼키고, 그의 세계를 부수고, 그의 실재를 왜곡함으로써 맺어지는 것(SCP-001 (잠금 해제) - SCP 재단, 2021)이다. SCP 재단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서구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두 가지의 대응 양상, 즉 실재성의 배제와 정상으로의 통합이라는 시도가 번갈아 나타나 왔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서구에서 정상과 비정상 개념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겠다.

5) ‘비변칙’은 SCP 재단에서 사용되는 특수한 개념어로, 일상어의 ‘정상’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2) 서구 역사 속 장애 인식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해 온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길다. 역사 속에서 장애는 이질적인 것으로 여겨졌고,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다. Stiker(1991)의 장애의 역사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로마에서 장애는 악마의 주술이라 여겨졌다. 간혹 장애인인 예언의 능력 등의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져 차별을 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경우 장애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졌다. 심지어 장애가 있는 유아를 버리는 일도 횡행했는데, 완전한 육체에 대한 이상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경우 『국가』에서 장애 아동을 사회에서 은폐 내지 격리하는 것에 동조하기도 한다(이동희, 2014). 히브리 문화에서 장애는 불순함을 대표했고, 중세 시대 장애인들은 시혜의 대상으로 취급되곤 했으며 고전주의 시대에 장애는 비합리성을 나타냈다. 즉, 장애는 훼손되지 않고는 표준에 동화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다. 17세기 이후부터는 계몽운동이 시작되면서 배제와 차별 일변도였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표준적인 잣대에서 ‘평균 이하’로 분류되거나 정신이상의 이유로 감금되었던 사람들은 노력과 적합한 방법에 의해 재활할 수 있는, ‘표준’에 부합하도록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즉 그들은 사회에 다시 통합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산업사회의 등장 이후 성장한 자본주의는 ‘장애’와 ‘비정상’의 동일시에 크게 기여했다. 자본주의의 도래와 함께 노동이 획일화되기 시작하였고, 기계의 속도에 사람이 맞춰야 하는 식의 노동이 주류로 떠올랐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는, 손상을 가진 이들은 노동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었다(김도현, 2007: 70). 즉 일을 할 수 있는 몸the able bodied과 일을 할 수 없는 몸the disable bodied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고, 이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장애라는 개념이 형성되었다(김도현, 2007: 72). 장애인들은 자본주의 체계 아래의 산업 노동 체제를 일그러뜨리고, 혼란하게 만드는 존재로 여겨졌다.

20세기부터는 병자와 장애인을 사회에 재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이 다시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1920년대 이후에 경마와 관련하여 쓰이던 ‘핸디캡’이란 용어가 ‘장애물’ 또는 ‘열등감’과 비슷한 비유적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다. 장애인은 핸디캡이 있는 존재로 간주되었고, 특수교육, 재활, 치료 훈련 과정과 같은 굉장히 특화된 치료법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분류되어 궁극적으로 경쟁에서의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배치되었다(Stiker, 1991).

상술한 모든 시대를 통틀어, ‘표준’이나 ‘평균 이하’등의 개념은 항상 존재했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가 정상과 비정상,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였다. 하지만 ‘표준’과 ‘표준 아님’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기준은 매 시기마다 상이하였다. 예컨대 고대에는 ‘완전한 육체’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산업사회에서는 ‘일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구분해 왔다. 이로부터 장애라

는 규정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규정임을 알 수 있다. 즉 장애는 사회구성적인 개념임이 명확해지며, 많은 이들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믿었던 정상/비정상의 구분이 사회의 산물이자 인위적인 폭력임이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역사를 통해 반복되어온 장애 차별은 그 자체로 일상성을 야기한다. 일종의 전통으로서 정당화되어 버린 것이다.

3) 사랑한다는 변명과 일상성의 형성

위의 역사적 과정을 보면, 20세기 이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차별과 배제에서 수용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방식만 변화했을 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한결같이 폭력적이었다. 고대·중세나 산업화 시대의 장애 인식은 그 자체로 그들의 사회적 행위성을 줄이는 차별의 양상을 띤다. 17세기나 20세기의 ‘통합적’ 장애 인식은 다수가 소수에게 동화를 강요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의 성격을 내포한다.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통합’의 양상을 띤다. 통합이라는 명목 하에 장애인들을 표준화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을 ‘문제가 있는’, 혹은 ‘사회에 맞게 변해야 하는’ 존재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폭력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진정한 문제는 통합, 혹은 복지와 같이 언뜻 보면 긍정적인 뉘앙스로 들리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행위의 폭력성을 감춘다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일상성’이 한층 강화된다.

SCP 재단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당한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의 형성 가능성을 무마하고 일상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현실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는 보호를 표방하며 결국 폭력을 일상성 뒤로 숨기고 있는 것이다. WJS의 제안의 하위 문서인 ‘O5 - 56)의 편지’에서는 일상성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O5 - 5는 이 편지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한다. 사실 재단이 ‘변칙적인’ 것들을 ‘사랑’하기에 그들을 확보하고, 격리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단 외부에서, 변칙개체는 그 특징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존재를 부정당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변칙적 특성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기도 한다. 어떤 경우든지 변칙개체들의 특수성은 이해받지 못하고, 그들은 홀로 외로이 그것을 감내한다. O5 - 5는 SCP 재단이 이러한 대다수의 폭력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그들을 격리해 왔다고 주장한다. 즉, 변칙개체들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확보하고, 격리하고, 보호한다는 것이다(SCP-001 (잠금 해제) - SCP 재단, 2021).

6) 앞서 언급한 O5 평의회의 5번째 의원이다.

“우리로서는 그런 일⁷⁾이 일어나게끔 뇌둘 수 없어. (...) 기억해 줘. 너를 뒤쫓고, 세상으로 부터 숨기고, 감옥에 가두면서도 우리는 네가 계속해서 존재하도록,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 해. 너에게는 존재할 권리가 있어. 네가 가진 그 모든 다름을 누릴 권리가.”

“우리는 너를 확보하고. 너를 격리하고. 너를 보호해.” (SCP-001 (잠금 해제) - SCP 재단, 2021)

편지는 설령 자신을 이해하지 못해도 재단이 변칙개체들을 사랑하기에 이런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는 O5 - 5의 말로 끝난다. O5 - 5는 격리나 배제가 변칙개체를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 재단은 변칙개체가 삼켜지지 않도록, 파괴되지 않도록, 존재가 부정되지 않도록 그들을 확보하고, 격리하고, 지킨다는 것이다. 그렇게 변칙개체들의 존재할 권리를, 그들이 다름을 누릴 권리를 지켜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방식을 여실히 드러낸다.

하지만 O5 - 5의 주장을 반박하는 인물도 존재했다. 예컨대 변칙개체로 분류되었던 초능력자 알베르토 마테오티는 WJS의 제안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네게도 존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던가? 유감스럽게도, 그게 자네들이 허락한 권리인 이상, 그러한 시혜는 결코 우리에게 달갑지 않다네.”(크리스크의 제안 - SCP 재단, 2021)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재단이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그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변칙개체들을 ‘보호’하는 모습은 어쨌든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차별과 다를 바가 없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해 암묵적 폭력을 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재단이 변칙개체들을 사랑하기에 격리한다는 O5 - 5의 말과 유사하게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장애인을 격리하고 배제하며, 그것을 장애인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포장하고, 사랑이란 이름을 붙인다. 실제로 현대의 많은 매체는 장애 때문에 어려움과 비참함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시혜와 동정을 불러일으켜 시청자와 독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다(김도현, 2007). 그렇게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으로, 객체적 존재로 전락해 버린다. 하지만 우리는 장애인들을 사랑하기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질을 더 낮게 만들기 위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변칙개체들

7) 재단 외부에서 변칙개체들이 겪는 억압을 의미한다.

격리하는 이유는 재단이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O5 - 5의 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SCP 재단』속 알베르토 마테오티가 지적하듯이, 누군가 허락하는 한에서 존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이 달가운 일일까? 누군가가 정한 한계선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한다'고 부를 수 있을까?

“그래, 우리 또한 적어도 널 고립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 않느냐고, 너를 불에 태워버리려 하는 학대자만큼이나 확실하게 너와 네 존재를 느리게 집어삼키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싶겠지. 우리를 괴물이라고 부르고 싶을 거고.”(SCP-001 (잠금 해제) - SCP 재단, 2021)

위 인용문이 보여주듯, O5 - 5도 그에 대한 반론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재단이 변칙개체를 위해서 그들을 격리한다는 주장을 고수한다. 이처럼 '합의 현실'은 변칙개체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다. 철저히 그들을 확보하고, 격리하고, 보호하는 재단과 격리할 변칙개체를 규정하는 '합의 현실'을 만들어낸 O5 - 5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이 사이에서 변칙개체의 목소리는 배제된다. 그들은 재단, 그리고 O5 평의회와 동등한 '주체'로 여겨지지 않고 '객체'로서 분리되며, 발언의 기회가 없는, 확보하고 격리해야 할 '수동적 대상'으로 여겨진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실제의 사회에서도 이러한 격리가, 즉 '만들어진' 구분에 따라 변칙개체를 격리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수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어째서 우리는 변칙개체를 '변칙적'이라고 명명하게 된 것일까?” 라는 질문은 제기되지 않는다. 이제는 폭력이 사랑과 도움이라는 탈을 쓰고 그들을 조여오기 때문이다. 현실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대중들은 일상화된 장애 혐오를 '문제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되므로, “어째서 우리는 다르게 태어나거나 혹은 그렇게 된 존재들에 온갖 이름을 붙여가며 지칭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들도 함께 망각한다. 이것이 '일상성'이다. 우리는 장애인을 '비정상'으로 분리하는 데 의문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객체로, 시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고정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일상성'의 본질이다. 이러한 일상성은 장애인의 목소리를 말살하고, 그들을 객체로 취급하며 그들에게 비가시적이고 암묵적인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말한다.

“아직도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해도, 내가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주길 바라.”(SCP-001 (잠금 해제) - SCP 재단, 2021)

4) 소결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는 기준은 사회적 합의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항상 ‘다름’에 대한 공포심과 경계심, 다름이 일상을 파괴한다는 두려움과 혼란이 존재했고, 사회적 다수는 정상으로, 소수는 비정상으로 규정지음으로써 사회는 비정상으로 규정된 이들에 대한 차별을 행해 왔다. 이처럼 인위적인 기준에 의거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은 분명한 폭력이나, 역사의 반복 속에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은 어느새 오랜 전통을 가진 ‘절대적’기준이 되어 버렸다. 합의된 기준에 따라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구분된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보호하려 한다. 이와 같은 행동은 사실상 장애인의 정체성을 강제로 박탈하는 폭력성을 내포함에도, 사회는 그들을 사랑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이 행위를 한다고 합리화한다. 이러한 합리화는 근본적인 질문, 즉 왜 우리가 ‘우리’와 ‘다른 이들’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을 만드느냐는 질문을 제거한다. 아무도 합의된 현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결국 질문의 부재 상태에 빠지게 된다. 곧이어 사회는 비정상으로 분류된 당사자의 목소리까지 배제함으로써 그들을 단지 객체로 환원해버린다.

이러한 폭력은 일상 안에 뿌리박혀 있고,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정당화되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현상을 통해 ‘일상성’이 형성된다. ‘WJS의 제안’은 변칙개체를 격리하는 재단의 입장에서 문서를 서술하며 변칙개체의 목소리를 박탈한다. 본 연구자들은 이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삶에 만연한 일상성을 드러내보였다. 이러한 일상성에 잠식되어 문제의식을 소실한 사회는 장애인 삶의 압박을 가하고, 결국 그들이 정체성을 잃게 만든다.

오늘날 2030 세대가 처한 상황도 이와 같다. 이미 사회 구조 전반이 일상성을 이용해 성찰의 가능성을 제거해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혐오 표현을 남발하고, 장애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만 정작 스스로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성찰하지 못한다. 본 연구자들은 『SCP 재단』의 분석을 통해 ‘어째서 2030 세대가 장애인에 대해 혐오를 표현하는지’에 대해 대답하였고, 그 책임을 2030 세대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찾을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가 행하고 있는 폭력의 양상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분석하여, 의식 없는 혐오를 행하고 있는 2030 세대의 자성을 도울 필요가 있다. 본고의 다음 장에서는 일상성 뒤에 숨어 있는 폭력이 정확히 어떤 양상을 띠는지에 대해, 그리고 이 문제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2. 『어둠의 속도』와 탈정체성

1) 폭력의 현실화 양상: 수정

지금까지 ‘정상’과 ‘비정상’이 본질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구성적인 개념이었음을,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일상성’이 가리고 있다는 문제상황을 살펴보았다. 2030 세대는 바로 이러한 일상성에 잠식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혐오를 확산해 왔던 것이다. 이로써 그들에 대한 옹호가 제시되었으니, 다음으로 다루어야 할 것은 일상성 뒤에 숨어 있는 문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밝히는 것이다. 오랜 시간 사회가 견고하게 구축해 온 일상화된 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째서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지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일상성을 혁파하고 2030 세대의 자성을 이끄는 것이 혐오 문제 해결의 실마리이다.

앞에서 간략히 서술하였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때의 ‘통합’은 장애인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을 ‘정상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회 속에서 순조롭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정상’과 ‘비정상’의 인위적 구분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폭력의 양상을 본고에서는 ‘탈정체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보다 자세히 말해, 본고에서는 ‘탈정체성’을 장애인의 개별적 정체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사회의 기준에 맞춰 ‘수정correction’하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수정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는 부정적 뉘앙스를 내포하지 않지만, 본고에서는 수정을 탈정체성을 현현하는 행위로 해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 수정이 뜻하는 바는 ‘기존의 정체성을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상반된 개념으로, ‘향상improvement’은 ‘기존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더 나은 상태로 이행하는 것’이라 정의하겠다.

2030 세대는 사회 속에 녹아든 탈정체성의 폭력, 수정적 폭력을 문제의식 없이 세습하고 있다. 이러한 폭력이 전이되는 양상은 미국의 소설가 Elizabeth Moon의 소설 『어둠의 속도』에 뚜렷이 드러나고 있다. 소설의 분석을 통해, 등장인물들이 장애인의 정체성을 대하는 방식, 정체성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회의 태도, 그리고 수정을 강제하기 위해 사회가 취하는 ‘경제적 억압’이라는 전략에 내재한 구조적 폭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비가시적으로 내재해 있는 사회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지적함으로써 Apologia의 자기성찰적 면모를 충실히 발휘하고자 한다.

2) 『어둠의 속도』에 드러난 장애인의 정체성

“나 자신이 누구인가는 저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폐증을 앓는 게 좋다고요?”의사의 목소리에 귀종하는 듯한 어조가 섞인다. 그는 나 같은 사람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다.

“나는 나 자신이기를 좋아합니다. 자폐증은 나 자신의 한 부분입니다. 전부가 아닙니다.”(P. 394)

위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어둠의 속도』의 주인공 루는 자폐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그 자체로는 만족한다. 그는 자폐증이 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천재적인 패턴 파악 능력과 뛰어난 감각 능력을 갖추게 되었고, 비장애인들에 비해 더 다채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런 걸까? 이래서 정상인들이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걸까? 내가 방법을 알고 잘하는 이 일과, 정상이 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할까? 나는 사무실을 둘러본다. 팔랑개비들이 갑자기 거슬린다. 그것들은 돌기만 할 뿐이다. 같은 패턴으로, 반복, 반복, 반복. 나는 송풍기를 끄려 손을 뻗는다. 이런 것이 정상이라면, 싫다.”(P. 61)

그는 자신이 정상인이 되는 상상을 해 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인이 된다면 자폐인일 때 느낄 수 있는 수많은 다채로운 감각, 예컨대 팔랑개비들이 돌아가며 그리는 색채와 빛 반사의 패턴을 느끼지 못하고, 단지 그것을 ‘같은 패턴으로 돌기만 하는’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임을 깨닫자, 그러한 정상은 싫다고 생각한다. 즉, 그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그의 정체성을 싫어할 어떤 이유도 없는 것이다.

3) 일반화: 탈정체성의 초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 절 초두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의사처럼, 장애인이 장애인임에 만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듯하다. 루처럼 자신이 장애인임을 긍정적으로 여길 수 있는 장애인들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사회는 장애인 개개인의 고유한 생각과 인격을 보지 못한다. 또한 개별 장애인들의 수많은 차이를 무시하고, 장애인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인정하지 않는다. 1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는 언제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특징을 바탕으로 구축된 ‘합의 현실’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것을 다루지 못한다. 따라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 규정한 뒤 배치해 두기 위해, 즉 절대다수를

위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반화’라는 전략을 사용한다. 정희진(2005)의 표현은 본고에서 정의하는 ‘일반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보여준다. “인간이 지닌 다중적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한 인간의 정체성을 장애인으로 환원하는 것이 바로 장애인차별주의이다.” 즉,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복합적인 정체성을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단지 장애인이라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바로 일반화이다.

이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장애가 가진 고유의 능력과 장애인 스스로의 장애에 대한 의견은 철저히 묵살된다. Smith(2001)는 “장애인의 정체성 - 손상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의 - 이 지닌 긍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사실상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며, “어떤 개인의 손상과도 별개로 발생하는, 장애인의 정체성이 지닌 여러 측면들이 경시되곤 한다”고 말한다. 사람들은 장애를 당연히 부정적 상태로 보고,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로써 각각의 장애인이 장애라는 일반화된 범주 하에 귀속된다. 또한 장애는 비정상과 동일시되어, ‘모든 장애인이 비정상’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형성된다. 장애라는 일면적인 정체성과 개인을 동일시함으로써 다면적인 정체성이 축소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랑하는 루와 같은 이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일반화를 통해 ‘탈정체성’이 발현한다. 소설 속에서, 일반화된 인식을 가지고 루에게 상처를 입히는 인물들을 여럿 찾아볼 수 있다.

내가(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과시적인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그저 생각하는 대로 말하라고 지적한다(P. 11).

“하지만 그 - 굉장히 어려운 책 같은데요, 정말 이해가 돼요?” (P. 308).

위의 두 인용문은 모두 ‘장애인은 ~할 것이다’라는 일반화에 의한 선입견을 가진 채 루에 대해 판단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루는 실제로 어려운 단어들과 책의 내용을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에도, ‘자폐인은 그럴 수 없다’는 일반화적 사고방식을 지닌 이들에게 있어 루의 행위는 단지 ‘과시적 언어의 사용’과 ‘읽는 책’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반응의 반복 속에서 루는 본질적으로는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여겼던 것과 달리, 사회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기는 모습도 보인다. 정상이 아닌 이상, 사회는 그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며 배제하고 억압한다. 그는 분명 본질적으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랑하나, 사회의 억압과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상인’이 되고 싶다는 일말의 회구를 가진다.

사회는 이처럼 암묵적으로 수정을 강요한다. 심지어는 1장에서 살펴본 대로 이것이 장애인을 위한 행위, 평등을 위한 행위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평등에 대한 사회적 약속은 모든 개

인적 차이들이 평등해져야 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회적·경제적 환경에 의해 야기되는 불리한 차이들만이 평등해져야 함을 요구한다는 것이다(Kristiansen et al., 2020).” 따라서, 사회는 수정이 아닌 ‘향상’improvement’을 실천해야 한다. 즉, 장애인이 ‘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과 평등한 지위와 위치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만, 『어둠의 속도』 속 사회와 현실의 사회는 모두 장애인을 비장애인으로 ‘수정’함으로써 평등을 실현하려 하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장애인을 동화시키는 ‘정체성의 말소’를 행하고 있다.

4) 수정의 강요: 한계화를 통한 억압

이러한 루의 갈등 속에서 그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루는 한 제약회사의 자폐인 부서인 ‘A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새로 부임한 상사 ‘크렌쇼’는 A 부서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직원들에게 ‘정상화 수술’을 강요한다. 정상화 수술이란 자폐 역진 치료라고도 불리는 수술로, 자폐인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수술, 즉 자폐증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이다. 이는 자폐라는 개인의 정체성을 완전히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정상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덧씌우는 행위라는 점에서 수정과 같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자네들은 적응해야 해. 자네들을 정상으로 바꿀 치료법이 있는 이상, 영원히 특별대우를 받으리라고 기대해선 안 되지. 저 체육관, 개인 사무실, 온갖 음악과 우스꽝스러운 장난감 나 부랭이들 - 정상이 되면 다 필요 없을 것들이지. 비경제적이야. 터무니없는 일이지.”(P. 127)

크렌쇼는 A 부서의 자폐인들에게 주어지는 특별 지원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이것이 회사의 손실을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을 비정상인으로 간주하며, 그들은 마땅히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크렌쇼의 부하직원 ‘올드린’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지적은 크렌쇼가 놓친 핵심을 정확히 보여준다.

“잘못 생각하시는군요. A 부서의 지원 설비를 철거하면 이익보다 회사의 생산성 손실이 더 클 겁니다. 우리는 부서원들의 특수한 능력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A 부서 직원들이 개발한 검색 알고리즘과 패턴 분석 덕분에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를 상품으로 전환하는 시간이 단축되었어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죠.”(P. 30)

지적의 핵심은, 크렌쇼가 문제 삼는 ‘지원 설비’ 덕분에 A 부서 직원들이 더 큰 생산성을 발휘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자폐인들이 그들의 능력에 맞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 설비가 필요하고, 그것은 그들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 즉,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걸맞은 업무환경을 부여하는 것, 그들의 업무환경을 ‘향상’하는 것이 이로운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1장 2절에서 다룬 산업화 이데올로기에 잠식된 크렌쇼에게는 오로지 표준화된 업무 방식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그는 A 부서 직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업무환경을 ‘수정’하려 한다. 지원 설비를 제공하는 것, 즉 장애인 각각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생산성을 담보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크렌쇼는 일반화를 전제하는 그의 확신을 더욱 신봉한다. 크렌쇼의 이러한 태도로부터, 일상성에 의해 당연시된 일반화의 세뇌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는지 알 수 있다.

심지어 크렌쇼는 A 부서의 직원들이 정상화 수술을 받지 않을 시, 그들의 존재가 회사에 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를 고려할 명분이 생긴다고 여긴다. 즉, 그는 강자의 위치에서 경제적 억압을 통해 A 부서 직원들에게 정상화 수술을 강요하려 한다. 크렌쇼가 경제적 억압을 통한 강요라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당연히 그것이 실제적 삶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가진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적 영역에서의 억압은 정치적, 사회적 억압보다 장애인의 삶, 나아가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다. Harvey(1993)는 이와 같은 경제적 억압을 ‘한계화marginalisation’, 즉 “잠재적으로 심각한 물질적 결핍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 근절될 수도 있는, 사회생활에의 참여 배제”라고 정의내린다. 크렌쇼가 가하는 한계화는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게 더 큰 강제성을 띤다. “신체적 결합은 개인의 경제적 비용에 대한 별개의 틀을 강요하는데, 이 중 많은 부분이 사회조직의 차별적 형식으로 인해 악화되기(Gleeson, 2020)” 때문이다. 즉, 장애인은 애초에 그들에게 부적합한 사회환경 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있다.

(...) 나는 보수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살 집과 입을 옷이 있다 (...) 운이 좋다 (P. 63).

타이어보다 회사 일이 더 걱정이다. 차가 없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되지만, 또 지각해서 직장을 잃으면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P. 158).

“전 자폐인이예요. 그게 저죠. 뭔가 길이 있어야 해요. 만약 해고당하면, 제가 달리 무슨 일을 하겠어요?”(P. 226).

이 세 인용문은 루가 스스로의 경제적 지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능력이 아닌 ‘운’에 의해 취업에 성공하였다고 여기고, 당장 터진 타이어보다도 회사에 지각할 것을 걱정하며, 자폐인으로서 직업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

다. 즉,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지속적 수입을 기대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가해지는 한계화의 폭력성은 배가된다. 장애인은 이미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희소하므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그 수입원을 유지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크렌쇼는 바로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적 약점을 이용하여, 정상화 수술에 한계화를 함께 적용함으로써 ‘살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포기해야만 하도록’ A 부서의 직원들을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체성의 수정, 탈정체성은 경제적 억압을 통해 이루어진다.

5) 억압의 내면화: 을의 동의를 통한 ‘재일상화’

이후, A 부서 직원들을 돕고자 했던 올드린의 노력 덕분에 크렌쇼는 해고당하고, 그들에게 정상화 수술은 더 이상 강요되지 않는다. 하지만 강요가 사라진 뒤 오히려 루는 수술을 선택하고, 정상인으로 거듭난다. 이러한 선택의 기본적인 이유는 수정의 요구에 경제적 억압이 결합한 강요의 방식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통 법규를 지킨다. 규칙을 따른다. 아파트에 평범한 가구를 놓고, 내 별난 음악은 아주 조용히 틀거나 헤드폰으로 듣는다. 그래도 부족하다.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데도, 진짜 사람들은 내가 변화하기를, 그들과 같아지기를 바란다. (P. 63)

상담사들은 우리에게 법적 지원이나 살 집을 구해줄 줄 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이해할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언제나 정상인에 보다 가까워지기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라고 권한다. (P. 189)

책에는 자폐증은 뇌에 문제가 있다고 쓰여 있었다. 그 말은 나를 반쯤되거나 버려져야 하는, 결함이 있는 컴퓨터처럼 느끼게 했다. 모든 개입, 훈련은 못 쓰는 컴퓨터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에 불과했다. 못 쓰는 컴퓨터는 결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나도 마찬가지였다(P. 229).

이처럼 사회는 일반화를 통해 장애인의 개별적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장애를 비정상과 동일시하고, 장애인들에게 ‘정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세뇌한다. 즉, 정상으로의 강요(수정의 강요)는 루에게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었다.

이때, 기존의 강요들에는 현실성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대다수가 루에게 정상처럼 살라고 요구했으나, 그들의 요구에 따라 루가 행동한다 한들 정상인을 흉내 내는 비정상인이 될 수 있을 뿐, ‘정상인’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루는 계속해서 본질적으로는 자폐자인

상태로서, 사람들의 강요에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꺾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크렌쇼에 의해 강요에 현실성이 더해졌다. 정상화 수술이라는, 완전한 정상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됨으로써 그간 루가 가져왔던 정상에의 일말의 희구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한 정상화 수술에 결합한 ‘한계화’라는 억압까지 포함한 강요는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았다. 한계화는 ‘살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수정해야만 하는’ 상황을 조장함으로써 정체성을 수정하는 일에 명백한 당위성을 부과한다. 여기에 기존에 그가 가지고 있던 정상에의 희구가 결합하며 루는 ‘정체성을 수정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로써 루 또한 일상성에 잠식된다. 장애가 수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나는 내가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 때문이야.” 내가 거듭 말한다. “나는 공항에 있을 때나 가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말문이 막혀서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여기저기에 가 보고, 내가 배울 수 있는 줄 몰랐던 것들을 배우고 싶어...”(P. 449)

이 인용문의 핵심은, 루가 “나 때문이야”라며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자폐인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받고 억압을 당하는 것이 루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 여기저기에 가 볼 수 없고 배울 수 없었던 것의 원인이 루 자신에게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본 연구자들의 대답은 ‘아니오’이다. 오히려 본고에서 계속 견지해온 입장과 같이,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인위적인 개념 속에서 장애인들이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보장하지 않고, 그들을 ‘필요에 맞게’ 수정하려 한 사회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모든 권력은 힘이 동의함으로써 정당화된다. 결국 루 또한, 스스로의 정체성을 사랑하던 본래의 자아를 잃고, 사회의 목소리에 현혹되어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부당한 이데올로기에 동의하게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종류의 일상성을 구축한다. 사회 제도의 피해자가 자신을 억압하던 제도에 동조하게 됨으로써,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주요한 행위자가 사라지게 되고, 이는 결국 동일한 폭력적 관행을 ‘일상화’시킨다. 당사자가 사회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현재의 사회가 별 문제 없다고 여기게 된다. 정리하자면, 사회는 경제적 억압이라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정체성을 수정해야 하게 강제하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수정에 수락하게 됨으로써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사회적 합의’가 일어난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2030 세대는 장애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혐오를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6) 소결

지금까지 Elizabeth Moon의 소설 『어둠의 속도』를 통해, 일상성 뒤에 가려진 폭력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스스로의 정체성을 아끼던 루는 일반화로 인한 사회의 부당한 편견에 의해 점점 고통을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되었고, 이 회의는 한계화를 통한 크렌쇼의 정상화 수술 강요에 의해 극으로 치달았다. 루는 결국 스스로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부정하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수정을 받아들인다. 사회는 인위적으로 규정한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에 맞춰 장애인을 분류하였고 이 분류에 의해 장애인을 일반화하였다. 또한, 일반화로부터 장애인의 정체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닌 수정하려는 시도만이 팽배해졌고, 크렌쇼는 이 부당한 사회구조를 이용해 경제적 억압을 가함으로써 수정을 강요하였다. 즉 사회는 장애인에게 끝없이 폭력을 가할 수 있는 인과고리를 만들어 장애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2030 세대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2030 세대의 문제의식을 말소해 왔는지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를 막기 위해 2030 세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과연 무엇인가? 사회의 구조가 이처럼 장애인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이 사회의 요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고, 그 인과가 매우 탄탄히 유지되고 있다면, 과연 일개 시민의 행동이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해답을 다음 장에서 제시하도록 하겠다.

3. 『아몬드』와 탈장애

1) 혐오에서 탈장애로의 이행

앞선 논의를 통해 정상이라는 개념의 규정이 인위의 산물이며, 그것이 탈정체성이라는 잠재적인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자기 성찰의 결론으로써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자기 성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그를 바탕으로 미래를 위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Apologia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들은 앞서 SCP 재단의 분석을 통해 보였듯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자체에서 폭력이 기인하고, 이 구분은 결코 본질적이지 않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따라서,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자체를 파괴하는 탈장애적 사고’가 될 것이다.

정확히 말해, 탈장애란 사회가 규정한 정상과 비정상의 틀, 그리고 일반화된 장애의 정체성에

현혹되지 않는 것이다. 즉 장애라는 정체성 하에서 일반화되고, 비정상적으로 규정되어 버린 개인을 그 틀로부터 꺼내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탈장애란 탈정체성에 의해 장애라는 특징 하에 귀속되어 있던 장애인의 다면적인 정체성을 모두 해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개인을 어떤 특정한 정체성에 귀속시키지 않고 ‘사람’ 그 자체로 보는 시선으로 자연스레 이어진다.

이와 같은 탈장애적 사고의 원리와 효능을 보이기 위해, 손원평의 소설 『아몬드』를 분석함으로써 그가 탈장애와 연대의 사고관을 보여주었던 방식을 따라가려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몬드』 속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을 분석해야 한다. 앞서 다룬 두 문학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아몬드』 속 사회의 시선 또한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이분법을 내포한다. 『아몬드』에는 그러한 사회의 이분법적 시선에 반응하는 세 종류의 인물 유형이 등장한다. 수정형, 포기형, 그리고 개혁형 인물이 그것인데, 본고에서는 소설 속에서 각각의 유형이 이분법적 시선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 중 탈장애적 태도를 보이는 개혁형 인물은 소설 속에서 인물간 연대를 가능케 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이런 탈장애적 장치가 소설에서 작용하는 방식과 그것이 상처를 주고받는 인물에게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살펴본 뒤 이를 현실 사회에 적용시킬 것을 최종적으로 제안할 것이다.

2) 정상화를 통한 폭력의 양상: 수정형 인물

『아몬드』에서도 사람들은 장애인을 ‘정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한다. 소설 속 주인공 ‘윤재’는 ‘감정표현불능증’이라는 이름의 병, 즉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를 근거로 사회는 윤재를 비정상적으로 규정짓는다. 『아몬드』 속 사회도 주인공 윤재의 수많은 존재적 특성을 오직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반화하고, 피해야 할 사람, 말 그대로 ‘보통’이 아닌 아이로 규정한다.

사회가 가하는 ‘비정상’이라는 규정은 비단 의학적 손상을 가진 윤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작품 중반에 등장하는 ‘곤이’는 어릴 적 부모를 잃어버리고 방황을 거듭하며 자라온 거친 소년이다. 소설 내에서 곤이는 윤재처럼 의학적인 손상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적으로 비정상이라고 규정되는 인물이다. 이렇듯 소설 속에서 윤재와 곤이는 서로 방식은 다르지만 정상과 비정상의 시선을 투여받는 인물로 설정된다. 『아몬드』에서는 이러한 시선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드러난다. 첫째로, 이 절에서는 사회의 이분법적 시선을 수용하여 누군가를 비정상적으로 낙인찍고 정상으로 수정하려는 인물인 ‘수정형 인물’에 대해 분석하겠다.

엄마는 ‘희로애락애오욕 게임’까지 만들었다. 엄마가 상황을 제시하면 내가 감정을 맞춰야

한다.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준다면 느껴야 할 감정은? 정답은 기쁨과 감사.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 느껴야 할 것은? 정답은 분노. 이런 식이었다(P. 37).

윤재의 엄마는 수정형 인물의 전형적인 예시이다. 인용문에 드러나듯이 그는 정상적인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주입해 윤재를 최대한 정상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어떻게든 윤재가 정상 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처럼 정상성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당사자에게는 또 다른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앞선 논의에서 다룬 바 있다. French(1994)가 ‘숨기기’가 때로는 장애를 드러내는 것보다 더 스트레스가 된다고 주장했듯 수정형 인물 또한 일견 윤재를 위한 행위를 하고 있는 듯 보이나, 실상 폭력을 가하고 있을 뿐이다.

작품에는 윤재의 엄마 외에도 수정형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그는 곤이의 아버지인 ‘윤교수’이다. 상술하였듯, 곤이는 사회의 낙인으로 인해 비정상으로 규정된 인물이다. 곤이는 유복하고 명망있는(즉, 정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윤교수의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부모의 실수로 실종된다. 그는 중국인 노부부 밑에서 자라다가 소년원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후 원래의 부모와 재회하지만 그런 상황을 거부하고 도망친다. 이렇게 성장한 곤이는 방향을 거듭하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난동을 부린다. 이런 곤이를 친아버지인 윤교수는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 보겠다.

“그 사람이 날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뭘 줄 알아? 강남에 있는 학교에 날 처넣은 거야. 거기 가면 내가 모범적으로 공부해서 좋은 대학이라도 갈 줄 알았나봐. 근데 첫날 가 보니까 나 같은 놈은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물인거야. 날 보는 눈빛 하나하나에 그렇게 쓰여 있더라고. 그래서 깡판을 좀 쳐 줬지. 거긴 알짖 없더라. 며칠만에 쫓겨났어. (...) 난 아들이 아니야. 잘못 찾아온 잡동사니지.”(P. 166)

윤교수가 보기에 곤이는 사회적으로 비정상인 아이였고, 따라서 그는 곤이를 최대한 정상화하려고 했다. 즉 윤교수 또한 수정형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아몬드』의 수정형 인물들은 비정상으로 규정된 인물의 정상화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저자는 그것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곤이는 사회적 시선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사회의 정상화 노력에 정면으로 맞닥치나, 그는 그러한 노력을 향상이 아닌 수정의 활동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거부한다. 2장에서 보여주었듯 수정이 낳는 탈정체성은 비정상으로 규정된 이들에게 심각한 폭력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자연히 이에 대한 반발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또한 후술하겠지만 윤재는 감정을 못 느낀다는 특징 때문에 사회적 시선을 인식하기 어려워 타인의 규정에 무감각하고, 따라서 그는 자발적 수정의 동기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아몬드』 속 수정형 인물의 정상화 노력은 성사되기 어렵다.

3) 정체성의 포기: 포기형 인물

설령 수정형 인물의 노력이 성사되기 어렵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규정된 인물들에게 모종의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작중 곤이는 수정형 인물인 그의 아버지와 사회에 의해 가장 많은 폭력을 당한 인물이다.

곤이를 가장 잘 이해해줘야 할 그의 부모는 오히려 곤이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수정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비행 청소년으로 분류되어버린 그의 정체성은 사회에 의해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성’의 대변자인 윤교수에 의해 그는 비정상적으로 분류되고 수정되어야 하는 존재로 전락한다. 소설 속에서는 곤이와 비정상의 동일시에서 나타나는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다. 다음 인용문은 곤이가 받는 차별적 시선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그렇구나. 그럴 거 같았어. 그래서 고집 안 피웠어. 한 번 말했거든, 내가 한 거 아니라고. 근데 소용없더라고. 입 아플 거 같아서 가만있었는데, 아빠라는 작자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돈을 바로 갚아 버리데.”(P. 215)

수학여행 중 현금다발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너나할 것 없이 곤이를 의심한다. 그가 범인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그가 ‘비정상’으로 규정된다는 사실뿐이었다. 이 역시 일반화에 의한 폭력이다. 물증보다도 확신에 의거해 판단하는 태도는 2장에서 크랜쇼가 보여주었던 일반화의 강력한 힘을 연상시킨다.

특히 곤이가 “차라리 말이야, 내가 더 나쁜 짓을 저질러 버릴까? 어쨌면 다들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잖아?”(P. 205)라고 자조하는 장면은 사회의 압박에 대한 곤이의 내면의 상처가 정체성을 포기하려는 생각으로 발전됨을 보여준다. 사회가 지정한 자신에 대한 비정상과 정상의 틀을 인정해버리고 주체성을 잃어버린 아몬드의 곤이와 같은 인물을, 본 연구자들은 ‘포기형 인물’로 정의하고자 한다.

4) 정상과 비정상의 파괴: 개혁형 인물

윤재 또한 곤이와 같이 수정의 시도를 수없이 경험했기에 포기형 인물이 될 소지가 다분했으나, 그에게는 ‘감정표현불능증’이라는 특성이 있었고 그로 인해 윤재는 사회의 시선이나 수정의 시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 문제는 심각해졌다. 어느 날 하갯길에 내 앞을 건던 여자애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개가 엮어진 채로 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애가 일어나길 기다리며 여자애의 뒤통수에 매달린 미키마우스 머리 끈만 바라봤다. 하지만 넘어진 애는 자리에서 울기만 했다. 갑자기 그 애의 엄마가 나타나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그러곤 나를 흘리며 허를 찼다. —친구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물어볼 줄도 모르니? 소문은 들었지만. 애가 정말 보통이 아니네. (P. 20)

“할멈, 사람들이 왜 나보고 이상하대?”(P. 21)

감정을 느끼고 이해할 수 없다는 윤재의 특징이 소설의 진행에서 사회의 시선에 자극받지 않는 특성으로 참신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아몬드와 저자는 윤재에게 이러한 특성을 부여함으로써 사회의 규정적 폭력에 대한 그의 고통을 무마한다. 윤재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비정상이라고 여기더라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정상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즉, 윤재는 사회의 시선이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다.

『아몬드』와 『어둠의 속도』 모두 포기형 인물을 설정함으로써 수정형 인물의 강압이 포기형 인물의 자기파괴로 이어짐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어둠의 속도』의 주인공은 자기파괴로 나아갔으나 『아몬드』의 곤이는 그러한 자기 파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몬드』의 저자는 사회의 규정과 수정에서 곤이를 구원해줄 수 있는 인물을 주인공 윤재로 설정했는데, 여기서 윤재의 특별한 능력이 서사의 장치로 활용된다. 정상과 비정상을 초월하여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윤재의 능력이 곤이를 방황에서 구출한다.

“내가 그동안 널 왜 찾아간 줄 알아?”

“아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 하나는, 적어도 너는 다른 사람들 처럼 날 쉽게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네 별난 머리 덕에”(P. 168)

인용문은 곤이가 윤재에게 그를 계속해서 찾아갔던 이유를 밝히는 장면이다. 곤이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윤재는 남을 함부로 재단하는 모습을 일절 보이지 않는다. 그의 감정표현불능증에 의해, 타인을 일종의 정서적 요인에 의해 부당하게 판단하거나, 편견에 의거하지 않고 오로지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윤재는 사회가 규정하는 정상성이란 무엇인지까지 고민하고, 정상성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는 ‘폰과 대화하기 어플’에서 인공지능에게 정상적인 게 어떤 것인지 질문하고 남들과 비슷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람은 다 다른데 누구를 정상의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지 질문한다. 그가 정상적으로 살길 바랐던 엄마의 메시지를 윤재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그는 엄마에게 소설 『B 사감과 러브레터』에서 B 사감의 1인 연극을 본 여학생들의 다양한 반응 중 어떤 여학생의 반응이 정상적인지 묻는다. 소설의 후반에 이르러서야 윤재의 이러한 고민의 해답이 드러난다.

멀면 먼 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으며 외면하고, 가까우면 가까운 대로 공포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껴도 행동하지 않았고 공감한다면서 쉽게 잊었다.

내가 이해하는 한, 그건 진짜가 아니었다.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았다(P. 245).

위 인용문은 어떤 것이 정상적인지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윤재가 내린 해답이다. 윤재에게 있어 정상성은 학습된 것이다. 희로애락애오욕 놀이부터 시작해, 그는 ‘정상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상인들의 수많은 행동양식을 학습했다. 하지만, TV 속 난민 아이가 죽어갈 때는 멀어서 도와줄 수 없다고 외면하는 사람들과, 광장에서 살인사건이 났을 때 무서워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없었다는 사람들은 그가 배운 ‘정상적인’ 사람과는 반대되는 인물이었다. 어쩌면 그동안 배워 온 바와 달리, 이들이 비정상이었던 것은 아닌가? 윤재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비정상이라 규정하는 것에서 모순을 느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늘 그래왔듯이 그저 타인을 ‘그 자체로’ 바라보면 될 뿐, 일체의 규정에 매달릴 필요가 없음을 깨닫는다. 정상과 비정상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여기고 파괴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정상과 비정상의 틀을 부수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인물형을 ‘개혁명 인물’로 정의하겠다.

5) 개혁형 인물의 탈장애적 연대

소설 속 개혁형 인물인 윤재는 다른 유형의 인물을 구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는 수정형 인물인 윤교수를 변화시키고, 포기형 인물인 곤이를 고통에서 해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곤이를 어떠한 규정 하에도 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윤재의 모습을 보고, 윤교수는 곤이를 수정하기 위해 행했던 일들이 폭력적인 강압이었다는 것과, 진정한 사랑은 수정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과거를 후회한다. 그러한 윤교수와 대조되는 윤재는 곤이에게 폭력을 당하고도 곤이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습은 윤교수의 반성을 유도한다.

포기형 인물인 곤이는 작품의 말미에, 자기 포기의 방법으로서 음지의 폭력배인 ‘철사’를 찾아가고, 윤재는 곤이의 본래 정체성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를 구하러 간다. 끝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악의 축으로 떠난 곤이를 끝까지 믿은 윤재 덕분에, 결국 곤이는 자신을 구하려고 위험에 몸을 던지는 윤재를 위해 본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철사를 뿌리친다. 윤재를 통해 곤이는 스스로의 본질적 정체성을 되찾게 된다. 즉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이 아닌, 윤재의 표현처럼 ‘감정이 풍부하고(P. 243)’, ‘착하고 좋은(P. 223)’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정상과 비정상을 초월하여 상대방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윤재를 주인공으로 세워 독자에게 탈장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윤재가 보여주는 탈장애적 시각은 2장에서 다른 탈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2장에서 언급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의 다면적 정체성은 탈정체성에 의해 ‘장애’라는 일면적 정체성 하에 모두 귀속된다. 하지만 장애라는 구분을 타파한다면 그 속에 간혀 있던 모든 정체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탈장애적 시각은 ‘연대’라는 구체적 행동과 연결된다. 규정은 배제와 분리를 함축하고, 이로부터 모든 혐오와 차별, 폭력이 파생된다. 1장에서 언급하였듯이, 사람들이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주된 원인은 그들의 ‘다름’에서 오는 공포에 있다. 하지만 탈장애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개인 간의 다름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된다. 대상의 다름을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차별에서 연대로의 이행이 가능해진다. 모든 규정의 울타리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갈라져 있던 모든 ‘변칙적’이고 ‘비정상적’이며 ‘장애’로 분류된 인물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공동체 속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때의 편입은 장애인의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1장에서 다른 ‘통합’과는 다르다. 이처럼 모든 규정을 파괴한다면 ‘경계 밖’에 있던 존재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자는 윤재가 아니더라도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 보는 시선을 가진 인물을 몇몇 보여준다. 이들은 여타 인물과 다르게 타인과 연대할 수 있었던, 서로의 아픔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물들이었다. 윤재 엄마의 친구였던 심박사는 사회가 윤재를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러한 사회적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윤재를 그 자체로 바라봐 주었고, 탈장애의 태도를 통해 윤재의 성장에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했다. 다음으로 윤재와 같은 반 학생 ‘도라’는 윤재의 감정표현불능증을 알게 되었음에도 윤재를 ‘비정상’이 아닌 그 자체로 바라본다. 특히나,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그를 수정하려던 사회의 노력에도 감정을 느낀 적 없었던 윤재에게 도라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끼게 했던 인물이다. 저자는 이러한 인물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이분법적 시선에 대한 비판과 탈장애의 가치를 제시한다.

6) 소결

지금까지 『아몬드』 속 세 인물 유형의 구분과 분석을 통해, 비정상과 정상의 규정이 무의미함을, 그리고 개혁형 인물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연대로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단지 사회의 규정만으로 개인을 비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기준이 비본질적임을 밝혔고, 그들을 정상으로 수정하려는 노력 또한 당사자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수정형 인물과 같이 타인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여 정상화하는 노력은 성사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화의 당사자에게 폭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폭력의 당사자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포기형 인물로 전락하게 된다. 곧이는 포기형 인물에 속하는 인물로서, 수정에 의한 폭력으로 정체성을 포기할 위기에 놓인다. 그는 타인을 일말의 규정에도 귀속시키지 않고 그 자체로 바라보는 개혁형 인물인 윤재의 연대적 노력으로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규정적 시선을 넘어 상대와의 연대를 가능케 하는 개혁형 인물을 오늘날의 장애 혐오와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려 한다.

III. 결론 및 논의

1. 결론

연구자들은 2021년과 2022년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사회의 주요한 화두였던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대한 2030세대의 혐오 인식 증대의 심각성을 인식하였고, 문학텍스트의 분석을 통해 이들의 혐오에 대한 Apologia를 제시하였다. 동시에 Apologia를 바탕으로 현재 사회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시의성 있는 해결책을 내놓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세 편의 문학텍스트 『SCP 재단』, 『어둠의 속도』, 『아몬드』의 분석을 통해, 일상성과 그 뒤에 은폐된 탈정체성을 규명하고, 이의 해결 방안인 탈장애까지 제시하며 총체적인 분석을 행했다.

『SCP 재단』은 사회가 정상과 비정상 등의 규정을 이용해 부당하게 현실을 구성하는 방법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구분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이고 인위적인 것임을 드러내었다. 또한, 사회가 인위적 규정을 그럴듯한 명분 하에 정당화하고 있음을 밝혔다. 정당화를 통해 일상성이 촉발되는 순간, 규정의 인위성 자체는 은폐되고 사람들은 이를 당연시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억압은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된다. 즉, 2030 세대의 장애 혐오가 사실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사회적 규정에 그 원인을 두고 있었음을 밝혔고, 혐오의 원인이 전적으로 2030 세대에 있지 않음을 드러내어 그들에 대한 옹호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2030 세대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차별적 사회 구조의 모습과 폭력의 양상을 『어둠의 속도』의 분석을 통해 보였다. 주인공 루 애런데일에게 가해지는 다양한 폭력의 양상은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 일반화를 통해 장애인의 다면적인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과, 장애를 당연히 정상으로 이행해야 할 상태로 여기는 태도는 장애인의 정체성을 무시함으로써 ‘탈정체성’이라는 존재론적 위기를 야기한다. 이를 통해 일상성에 감추어져 있던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었다.

마지막으로 『아몬드』의 분석을 통해서 ‘그렇다면 2030 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였다. Apologia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의 폭력적 태도 대신 취해야 할 새로운 태도를 제시한 셈이다. 주인공 윤재와 곤이가 보여주는 정상과 비정상 개념의 무의미함을 바탕으로, 탈정체성을 해결하고 규정을 초월할 수 있는 연대를 실현하는 것이 오늘날의 혐오 문제 해결의 초석임을 밝혔다.

2. 논의

본고에서 보여준 Apologia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일상성 뒤로 은폐된 탈정체성이라는 폭력을 가시화함으로써 2030 세대를 옹호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문제를 파악하여 단지 2030 세대에게서 혐오의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닌, 사회 구조 전체를 성찰하여 근본적 문제를 발견해내는 방법을 본고를 통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가 이어져 오늘날 장애 혐오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또한, 최종적으로 본 연구자들은 2030 세대가 정상과 비정상의 사회적인 규정을 넘어서 장애인에 대해 탈장애적 시선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문학텍스트 ‘아몬드’를 통해 탈장애를 행하는 방법을 엿볼 수 있다. 소설의 주인공 윤재가 바로 탈장애적 시선을 보여주는 장본인이다. 이를 본고에서는 ‘개혁형 인물’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 인물은 장애와 정상성을 비롯한 모든 규정을 파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경계지어진 이들 간의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본 연구자들은 사람들에게 윤재와 같은 태도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연대는 오늘날 사회에 만연한 혐오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태도이다. 1장을 통해 살펴보았듯, 혐오의 원인은 공포와 불편함이다. 장애에 대한 공포는 인위적인 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해지므로, 장애에 대한 규정은 곧 혐오를 촉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일말의 규정조차 배제하고 사람을 사람 그 자체로만 바라보려는 연대의 태도는 존재자 간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이는 공포를 저하시킴으로써 혐오의 악화를 촉진한다. 따라서 더 많은 2030 세대가 탈장애적 연대를 습관화한다면, 혐오와 갈등이 보다 줄어든 사회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도현. (2007). 당신은 장애를 아는가. 서울: 도서출판 메이데이.
- 김도현. (2009). 장애학 함께 읽기. 서울: 그린비.
- 김민령. (2021). 포스트휴먼과 장애 아동의 신체성 - 아동청소년 SF 서사를 중심으로. 아동청 소
년문학연구, 29, 269-299.
- 김세령. (2015). 한국 장애인 문학의 새로운 지평. 현대소설연구, 52, 217-255.
- 박성애. (2018). 장애 관련 아동서사문학에 나타나는 윤리성과 전복의 상상력. 아동청소년문학 연
구, 22, 323-350.
- 박성애, 윤상용. (2020). 청소년소설에 나타나는 타자성의 공간과 타자의 존재 방식 -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84, 339-362.
- 비마이너 (2022).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혐오테러’에 무방비로 노출된 장애인활동가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22>
- 손원평. (2017). 아몬드. 파주: 창비.
- 이동희. (2014). 장애에 대한 이분법적 시선과 담론의 극복.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37(4),
163-190.
- 정희진. (2005).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 서울: 교양인.
- 차희정. (2012). 장애인 소설에 나타난 ‘장애’ 인식의 양상 - 장애인 창작 소설을 중심으로 -. 한
국문학논총, 62, 331-356.
- 최선희, 이승희. (2008). 한국소설에 나타난 장애인관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3.3, 101-120.
- 한겨레 (2022) 서울대 학생 545명 “전장연 향한 혐오 메아리 부끄럽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44560.html
- SCP 재단. (2021). 크리스크의 제안 - SCP 재단. 크리스크의 제안 - SCP 재단.
<http://scpkko.wikidot.com/crssk-s-proposal>
- SCP 재단. (2022). SCP 재단에 대하여 - SCP 재단. SCP 재단에 대하여 - SCP 재
단.<http://ko.scp-wiki.net/about-the-scp-foundation>
- SCP 재단. (2021). SCP - 001 - SCP 재단. <http://scpkko.wikidot.com/scp-001>
- SCP 재단. (2021). SCP - 001 (잠금 해제). <http://scpkko.wikidot.com/wjs-proposal-1>

- SCP 재단. (2021). WJS의 제안 - SCP 재단. <http://ko.scp-wiki.net/wjs-proposal>
- Devileger, P., & Rusch, F., & Pfeiffer, D. (2021).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이동석, 이하림, 이유림 옮김). 서울: 그린비.
- French, S. (1994). *On equal system: working with disabled people*. Oxford: Butterworth-Heinemann.
- Ghosh, A. (2021). 대혼란의 시대(김홍옥). 서울: 에코리브르.
- Gleeson, B. (2020). 장애의 지리학(최병두, 임석희, 이영아 역). 서울: 그린비.
- Harvey, D. (1993). *Class relations, social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in Keith, M. & Pile, S. (eds), *Place and Politics of Identity*, London: Routledge.
- Kristiansen, K., & Vehmas, S., & Shakespeare, T. (2020). 철학, 장애를 논하다: 메를로-퐁티와 롤스에서 호네프와 아감벤까지(김도현 역). 서울: 그린비.
- Moon, E. (2021). 어둠의 속도(정소연 역). 파주: 도서출판 푸른숲.
- Shah, S., & Priestley, M. (2014). 장애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변화하는 사회 속 장애청소년들의 이야기(이지수 역). 서울: 그린비.
- Shakespeare, T. (2002). 장애학의 쟁점(이지수 역). 서울: 학지사.
- Smith, S. R. (2001). *The social construction of talent: A defence of justice as reciprocity*, *Journal of Politic Philosophy*, 9, 19-37.
- Stiker, H. J. (1991). *De la métaphore au modele: l'anthropologie du handicap*. In Devlieger, P. J., Rusch, F. R., & Pfeiffer, D. (eds.). (2021). 장애를 다시 생각한다 (이동석, 이하림, 이유림 역). 서울: 그린비.
- Stiker, H. J. (2021). 장애: 약체들과 사회들(오영민 역). 서울: 그린비.
- Thomson, R. G. (2015). 보통이 아닌 몸(손홍일 역). 서울: 그린비.

원고접수 : 2022. 9. 18.	수정원고접수 : 2022. 11. 10.	게재확정 : 2022. 11. 30
---------------------	------------------------	---------------------

Abstract

Apologia for the Inherited Hatred of 2030 Generation:

A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Literary Text
about Dailyness, De-identity, De-disability

Jung Sir Vin*·Yu Eun Bin**·Lee Ui Gy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oot causes of hatred in the generation of 2030 as well as the various manifestations of the violence that broke out during the Solidarity Against Disability Discrimination's rallies. Apologia, which is defined as "defending individual beliefs with self-reflection", can be used to accomplish this goal. The researchers will first defend the 2030 generation by arguing that hate is a result of unfair discrimination that has persisted for a very long time. Next, We'd like to engage in some self-reflection by objectively analyzing and showing the nature of violence committed nowadays. Finally, by offering a solution to the problem of disability prejudice in today's society, we hope to realize the worth of Apologia.

In order to have a thorough discussion of this, three literary texts—SCP Foundation, The Speed of Dark, and Almond—were studied using a study methodology called 'literary text analysis'. We attempted to convey "support", "self-reflection", and "conclusion of reflection" through each literary work. To this end, talks concerning the notions of "dailyness," "de-identity," and "de-disability" were held. The study's findings revealed that

*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Philosophy, Soongsil University

**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Philosophy, Soongsil University

*** Bachelor's degree, Department of Philosophy, Soongsil University

today's society has normalized the issue of aggressive and discriminatory institutions, which is approaching the disabled as de-identification violence. As a solution to this constant aggression, it was suggested to adopt a de-disability gaze.

Keywords : Disability, 2030 generation, Apologia, Dailyness, De-identity, De-disability